

대법 '사내하청 근로자는 파견' 판결

광주·전남 2만여명 소송 잇따를 듯

기아차·현대삼호중·금호타이어 등 곳곳 충돌 예상

'사내하청을 근로자로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금호타이어·현대삼호중공업 등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 산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사내하청을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규제를 피해갔지만 앞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소송이 잇따르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며 때문이었다.

26일 광주고용노동청과 지역 산업체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 57곳 가운데 35곳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

하고 있다.

광주는 기아차 광주공장 등 19개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업체 117개사 425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16개 사업장에서 207개사 1만9216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별로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직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480여명, 금호타이어 850명(광주 480명, 광성 370명), 현대삼호중공업 8200명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사내하청 근로자 전체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

기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이슈화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또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아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최모씨 등 204명은 지난해 7월 서울 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도 사내하청 근로자 박모씨 등 131명이 지난달 관련 소송을 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기아차의 경우 정규직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나 하나의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불법 파견 근무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과 인사·노무상 지휘감독권이 독립돼 있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업체"라며 노조의 불법 파견 근무 주장을 일축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생산라인 중 도급 공정이 완전 분리돼 있고 인사·근태·작업지시 등도 도급업체에서 직접 감독·지휘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적법한 하도급 운영이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도 "불법 파견이 아닌 합법적 도급업체로 작업 시지와 인사·노무 지휘권이 독립돼 있다"고 밝혔다.

단독 후보일 경우 사회자가 구두로 만장일치 찬성 여부를 묻고, 1명이라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가 다음달 21일 치러진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앞으로 3년간 새로운 의결부를 이끌어 갈 제21대 회장 등 임원과 의원, 특별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 지난 24일 공고했다.

광고에 따르면 광주상의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30분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제21대 회장과 부회장 5명, 상임의원 20명, 감사 2명 등 임원진을 선출한다.

회장 출마를 위해서는 의원총회 4일 전(3월17일)까지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차기 회장 선거에는 박홍석(럭키산업 회장) 현 회장이 일찌감치 연임 도전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맞서 자전타천으로 3~4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후보군을 대부분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경선 가능성에 낫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독 후보일 경우 사회자가 구두로 만장일치 찬성 여부를 묻고, 1명이라

수를 얻어야 회장에 선출된다.

앞서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가 다음달 13일 실시된다. 의원 선거는 회원 가운데 3년간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회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며 의원 70명, 특별의원 10명 등 총 80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입후보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후보자등록을 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뉴스 브리핑



광주·전남지역 청년창업협의회 구성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광주시, 전남도, 창업보육센터 등 45개 기관이 참여한 '광주·전남지역 청년창업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청년 창업 가발굴에서부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에 적극 협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중복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올 2만1000명 국가전문자격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6일 올해 2만1000명의 국가전문자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0개 종목 1만 9000명에게 국가자격증을 부여했다.

광주본부는 특히 그동안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시행하던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공인노무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면허,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5개 종목을 올해부터는 광주에서 시행한다.

수출 100만원 이하 기업 무역기금 저리율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중소 무역업체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2012년도 무역기금 저리 융자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융자 대상기업은 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이며, 융자 조건은 2년 기간(1년 거치·연 4회 균등분할 상환)에 금리 연 4%다. 업체별 융자추천 한도는 3억원이다.

무역기금 신청은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첫째 주에 받게 된다.

회망업체는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또는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신청한 후, 수출실적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gj.kita.net)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943-94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우일렉 상업용 전자레인지

누적 판매 30만대 돌파했다



갤럭시빔과 갤럭시탭2

2(10.1)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27일부터 3월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2012)에서 초슬림 프로젝터 스마트폰 '갤럭시빔'과 '갤럭시탭

/연합뉴스

건설대란은 피했다

레미콘 파업 사흘만에 끝... 가격 협상 계속키로

전국 레미콘 파업 사태가 사흘만에 막을 내려 최악의 건설대란은 피하게 됐다.

26일 광주·전남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지식경제부 회의실에서 정부와 레미콘·시멘트·건설업계가 3차 협상을 열어 일단 레미콘 공급 중단을 풀고 가격 협

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99개 업체가 지난 22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만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 레미콘조합 이사장은 "지

경부에서 일단 공급을 풀어달라고 요청

청해졌다. 지경부가 최대한 사태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레미콘 파업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광주 수완·첨단지구 등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과 아시아문화전당, 나루 혁신도시, 여수엑스포 막바지 공사 등 광주·전남 주요 공사 현장에서 공정이 늦어지는 등 차질이 우려됐다.

일단 레미콘 공급 재개로 최악의 고비는 넘겼지만 사태의 발단인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인상은 합의 도출에 실패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82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10	16	24 25 35 4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897,921,179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73,808,046	30
3 5개 숫자 일치	1,350,971	1,639
4 4개 숫자 일치	50,000	78,522
5 3개 숫자 일치	5,000	1,292,139

신제품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일X 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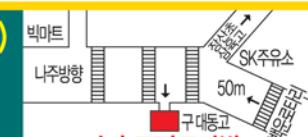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경색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돋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핵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립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전액사면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저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h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즐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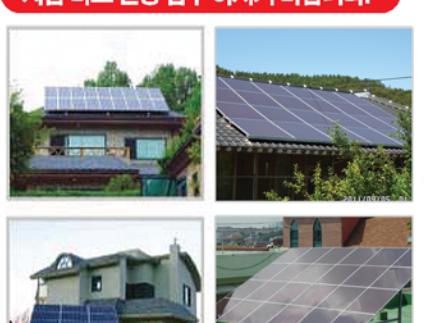
하시카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 안내

안녕하심~! 태양광센터입니다. 헤마다~너~ 광주광역시 수요급증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실치를 못하고 자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주시면 태양광전문가가 직접 전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텍 ☎ 062-512-1180 / H.P 011-659-7001